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AI 스마트 돌봄 로봇 상용화 추진

10억 투입해 로봇 100여대 보급
경북협의회 구성으로 정책 등 지원
신속 실증 거점지역 조성도 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추진중인 경북도가 돌봄에 AI를 결합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6일 ‘AI 스마트 돌봄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AI 스마트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 ▲AI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 유치 ▲AI 스마트 돌봄 신속 실증 지역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스마트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선 내년부터 10억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곳에 안전, 교육, 보건 3대 분야에 AI 기반 돌봄 로봇 100여 대를 보급한다. 현장 돌봄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AI와 로봇을 활용해 돌봄, 교육과 AS까지 통합 서비스



포스코 스마트 돌봄 인형.

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AI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선 국책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AI·로봇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스마트 돌봄 경북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기획, 프로젝트 발굴, 공모사업 대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공무원, 공공기

관, 돌봄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AI 스마트 돌봄 전문가 릴레이 특강을 진행한다.

‘AI 스마트 돌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선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신속 실증 거점 지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형 AI 돌봄 데이터 허브 구축, AI 돌봄 제품 신속 개발 및 사업화 지원,

AI 돌봄 서비스 신속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달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축소 등 인구 위기에 돌봄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AI 등 첨단 기술을 돌봄에 결합해 일손 부족을 덜고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과의 전쟁’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APEC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체계’ 채택까지 연결되는 등 경북도가 인구 위기를 글로벌 의제로 확산시켰다.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과 돌봄을 결합한 스마트 돌봄은 인구 위기 대응과 도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함양군

관광도로 1호 ‘지리산 풍경길’

함양군 ‘지리산 풍경길’이 국토교통부가 처음 시행한 ‘대한민국 관광도로’ 국내 1호로 지정됐다.

총연장 59.5km에 달하는 지리산 풍경길은 지리산 마천 백무동을 시작으로 오도재, 상림공원, 대봉산휴양밸리 등을 지나는 노선으로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룬 길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관광도로에 대해 문화·휴게 시설 정보, 지역 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광주·전남도

혈액 보유량 수급 부족 ‘비상’

전공의 복귀에 따라 대학병원 수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운 날씨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 혈액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준 지역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이다. 혈액형별로는 O형 2.5일분, A형 2.3일분, B형 6.6일분, AB형 2.9일이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보다 적으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혈액보유량이 3일분 미만이면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보성군

오는 21일부터 ‘별교꼬막축제’

전국이 기다린 바로 그 맛! 별교꼬막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성군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21회 별교꼬막축제를 별교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 별교꼬막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별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축제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정정갯벌의 선물! 별교꼬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별교꼬막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전시회, 별교꼬막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가 들어선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함평군

4·8만세운동기념탑 숲 조성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의 항일 정신을 되새기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조성했다.

함평군은 해보면 4·8만세운동 기념탑 주변 생활환경숲을 11월 초 조성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함평의 자랑스러운 항일 정신을 전승하고자 추진됐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전 허가

부산 기장군 위치… 40년 수명 만료
3년4개월간 심사 후 계속운전 허가
2033년 4월 8일까지 운전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가동이 중지됐던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다시 운전이 가능해졌으며, 원전 당국은 내년 2월 재가동을 위해 설비 개선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13일 열린 ‘제224회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운전을 정지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4

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했다.

이어 이듬해 3월 3일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를 첨부한 운영변경허가 서류도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 KNIS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 내렸다.

앞서 원안위는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내년 2월 고리 2호기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양군, 등산로 관리부실 문제 개선해야

등산로 인근 양봉시설 등 조치 없어

영양군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지역 곳곳에 등산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되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영양군 주민 K 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현리 강변 인근 ‘반변천 수빙둘레길’에서 최근 심각한 위험을 목격했다. 등산로 바로 옆에 양봉농가가 벌통을 다수 배치해 벌 쏘임 사고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군에 민원을 제기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위험 상황이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해당 구간에만 그치지 않는다. 영양군 관내 여러 등산로



반변천 수빙둘레길에 양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

에서는 계단 파손 등 안전시설 결함이 발견되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보수·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사고가 난 뒤에야 조치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전남도, 벼 재배면적 전년比 5295ha 줄어

전국 8개 시·도 중 최대 감축폭
논콩·가루쌀·조식료 등 집중육성

올해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000ha 이상 줄어들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벼 재배면적은 14만 2443ha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4만 7738ha보다 5295ha 줄어든 수치다.

전국 시·도 중 최대 면적을 감축, 산지 쌀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감축 규모는 전남 5295ha, 충남 4515ha, 전북 3629ha, 경북 2723ha, 경남 2254ha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만 199ha(2.9%)가 줄었다. 전남 지역은 8개 시·도 중 최대

감축폭인 3.6%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했다.

이에 전남도는 논에 벼 대신 논콩·가루쌀·조식료 등의 대체 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과 농경지 면적은 유지하면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67대 17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500ha 30억원, 조식료 재배단지 200ha 2억원, 논콩 전문단지 조성 8곳 21억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전년 18만 2700원보다 4만 5116원 높은 22만 7816원을 기록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부산 피란유산’

예비평가 등 후속절차 이행

부산시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됐다.

부산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다. 작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처음 신청했으나 한차례 보류됐다.

이번 신청은 작년과는 달리 피란유산 2곳이 추가된 11곳의 유산으로 구성됐다.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제안사항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따라 유네스코 예

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잠정목록 유산 14건 가운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된 유산은 지난 3월에 선정된 ‘양주 회암사지유적’과 부산시의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2건이다.

국가유산청은 국내외 절차 진행에 따라 최종 등재를 위한 후보를 선정하고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여가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피란유산은 국내 최초 근현대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례”라며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이러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이도식 기자